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강가에서 주워온 돌 하나가 책상 위에서 가만히 흐느끼고 있다. 그대는 듣는가, 책상 위에서 돌이 혼자 흐느끼우는 소리를. 나는 새를 쏘았던가? 저 돌은 내가 쏘아 떨어뜨린 새인가? 지난 여름 초목을 태울 듯 하던 불꽃 뒤가 찾아오고 소슬한 바람이 분다. 복숭아를 좋아하던 용접공은 연애에 빠지고, 졸업미가 붉은 꽃을 피웠던 여름은 지나갔다. 나이 어린 이모가 시골집 뒤 골 석류나무에서 몰래 탄 석류를 먹는 계절이 온다. 한 때 번성하던 것은 시들과 바스라지며 우리에겐 관조의 시간이 배달되는 것이다. 가을 저녁엔 후박나무 잎사귀가 불잡고 있던 나뭇가지들 슬그머니 놓치고 제 풀에 내려앉는다. 저렇듯 땅으로 허강하는 조용한 시간이여, 나는 유랑의 무리와 그 속에 고립된 나를 가만히 돌아보련다.

봄엔 산등성이 비탈밭에 심은 사과나무 700그루에 퇴비를 주고 농약을 치고, 늦가을엔 마가목 열매를 따서 설탕을 쏟아부어 과실주를 담그려고 했다. 동지 때면 호롱불 아래서 권정생의 동화책이나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작은 곱들은 산산이 깨졌다. 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농협 빛만 늘었다고 울분을 토해내던 영농

책상 위 돌은 왜 흐느끼는가

후계자들이 서울에서 넥타이를 매고 다단계 회사에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름내 식빵을 한 조각씩 떼어 입에 넣으며 '성문종합영어'와 '수학의 정석'을 붙들고 있었지만 학업은 고만고만했다. 술에 취하면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불러줬고, 나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해 변호사를 하겠다고 이종사촌은 모의고사를 망치더니 거제도에 내려가 용접공이 되거나 원양어선을 탈거라고 떠들어 댔다. 나 역시 대학입시를 앞두고 정음사판도 스토에프스키 전집 전권이나 독파하기로 결심하고 뜻 뜻한 눈썹을 밀고 토방에 들어갔다.

가을이 오니, 온갖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른다. 내가 열아홉일 때 대수학과 절대 음감은 인감생성이었으니 출세에는 관심이 없었다. 상임고교를 졸업하고 시흥은 행에 들어가 창구 직원으로 일하다가 감리교회의 신자가 되려 눈이 맞아 조출한 살림을 꾸리며 1남 2녀를 기르며 살고 싶었다. 내가 진학한 상업고교에는 소설을 잘 쓰는 최재섭과 제홍만이 선배로 버티고 있었다. 한 때 문학도였던 이들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제홍만은 소설은 진작에 작파했다고 했다. 그는 날마다 영어 단어 50개씩을 외우며 전액 장학금을 받더니 졸업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곧 외환은행에 특채되었다. 훗날 그가 우수 행원에 뽑혀 마드리드지점에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재섭은 서울시청 앞 백남빌딩에 있던 대한항공을 다녔는데, 그는 자주 가난한 후배와 함께 명동의 카페 때때로에서 가서 연극을 보았다. 명지대학 야간부 영문학과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난 그를 다시 만난 건 16년 뒤 뉴욕에서다. 1991년이던가. 미국 굴지의 보험회사 부사장으로 임신양명의 꿈을 이룬 그가 뉴

욕에서 발행되는 미주 한국일보에 난 내 인터넷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인생에는 꽃 향기와 행운, 실패와 배신, 비탈과 암초가 따른다. 나는 들국화 데미 같이 살뜰하게 살진 못했다. 스물넷에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시집 몇 권을 내고, 출판사 창업에 했다. 감리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으나 참한 처녀와 결혼도 하고, 여귀같이 어여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식솔로 견사하며 가장 노릇을 해냈다. 그 일을 믿기 힘들 정도로 능란하게 해냈다. 뒤늦게 수업을 배우고 근육을 키웠다. 아이들 셋은 백화점 문화센터의 수영 강습반에서 생존수업을 배우게 했다. 서울 하계울림픽 마라톤 경주가 열린 날 경주마처럼 질주하던 선수들의 역주와 잠실 주경기장의 폐회식 세리머니를 보며 웅얼인저 암담해진 채 불안에 떨었다. 나는 새벽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과 임의 동행 뒤 서울검찰청 특수2부에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저녁 8시쯤 영장이 떨어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언제나 나쁜 일들은 한꺼번에 닥친다. 가정도 사업도 다 깨졌다. 주말마다 가족과의 외식으로 한일관 불고기 사 먹으, 서울 연고 구단의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을 데리고 잠실야구장에 가려던 꿈도, 휴일마다 목욕탕에 가서 어린 아들에게 등을 맡겨 밀려낸 꿈도 찰나의 꿈인 듯 사라졌다. 아, 고향이 시절이 오기만 아예 글러버린 것인가? 나는 무슨 새를 쏘아서 떨어뜨렸던가? 새는 떨어되어 저렇게 책상 위에서 흐느끼던가? 낙엽을 밟고 오는 계절이여, 가을 저녁 햇대에 올라가 길게 울던 수탉이여. 나는 계좌이체로 자동 납부하던 녹색당 당비를 다는 내지 않으려한다.

종교칼럼

휴지 한 장도 아끼는 마음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얼마 전 서울에 갔다가 오랜 전통 음악과 후진 양성에 힘쓰는 교도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마침 밖에 나오셨다가 반가이 맞아 주셨다. 집에 들어서다가 바람에 밀려다니는 포장지 조각을 보시더니 주워 들고 들어오셨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위를 찾아 주워온 포장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상자에 담으시면서 "이런 걸 이렇게 쓰면 텐데 합부로 버리니 참 못마땅하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보니 장롱이며 책상 위의 공간마다 헌 봉투며 크고 작은 상자들 그리고 깨끗이 씻어 놓은 우유 팩이 뽁뽁이 들어차 있었다. 옛날엔 헌 봉투 등을 모아 길가에 장사하는 분에게 주면 좋아했는데 비닐봉투가 나오면 각자 가방들을 가지고 다니고부터는 그것도 시들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즈음 버리지나 아깝고 쌓아 두자니 짐이 된다면 격정을 토로했다. 매사가 이렇다보니 다른 생활에서도 모두 아끼고 모으는 생활이다. 혈혈단신인 처지에서 매사를 이렇게

휴지 한 장도 아끼는 마음

살아가는 걸 보고 지나치거나 인색하거나 하는 편견이나 뉘웃소리 없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활 속에서 모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뜻을 이해하고 머리를 숙이게 된다. 스스로에게는 그토록 검박하면서도 후진 국악인과 전통 음악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전국 연합회를 꾸려가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중에다 전통의 맥을 이을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염원을 알차게 키워가고 있다. 교도님의 이러한 생활 신조는 '원불교'를 만나면서 더욱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교전을 봉독할 때마다 어찌 그리 적실한 가르침일까 하고 무릎을 치며 좋아도 하고 매우 기뻐 수 없이 눈물도 흘린다고 한다.

요즈음 음식점을 가보거나 대중 목욕탕을 가보거나 관광지를 가보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고 있다. 밥 한 톨, 물 한 방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수고로 여기까지 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먹고 쓰고 생활하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 식탁 위에 흘린 밥알을 가리키며 농부의 땅을 아끼하던 교훈이 이제는 공허한 소리로 되고 말았다. 소비 욕구를 충족하는 것까지 광고들을 보노라면 삶이란 바로 소비라는 생각이 든다.

잘 산다는 것은 비싼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맘 풀려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소비는 생산을 촉진시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점점 자원이 고갈되고 폐기물은 누적되며 환경은 오염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먹이사슬처럼 순환하며 상보적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현대의 소비는 소비가 바로 소모요, 고갈요, 공해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날로 늘어나는 소비 욕구에 발맞추다보면 머지않아 지구는 황폐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나 변화로 느끼고 있다.

대중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헌 종이, 몽당연필 하나도 합부로 버리지 않으셨다 한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말이 맞지 않는 얘기일까? 아니면 그당시는 물자가 귀한 때라서 그랬을까? 그것만은 아니다. 흘러가는 냇물도 합부로 쓰는 것을 나무라셨던 대종사님의 뜻을 헤아려보면 물자의 헨하고 귀함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 자체를 소중하게 알고 아껴 쓰고 살려 쓰는 생활을 보여 주심이며 보은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근검한 생활은 다만 가난을 극복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지혜다. 근검은 스스로의 처지에 긍지와 평안함을 갖게 하고 나눔을 실천할 여유가 되며 자원과 환경을 보존하는 요건이 된다.

"이 세상은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자원은 없다"고 한 건디의 말은 이 시대에 길이 음미할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고향사랑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간 또는 지자체와 관련 기업간 결연을 맺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듯 보인다.

흔히 우리가 외지에서 낯선 사람과 통성명을 할 때 상황이 다소 궁색하게 되면 출신 고향 등 지역, 학연, 혈연을 찾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좀 접근하기 쉽고 최대 공약수를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일 듯 싶다.

이는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여러 선거에서 제일 먼저 출신지역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사람이 사는 곳은 모두 다 엇비슷하다는 생각이다.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서 가장 연대가 강한 조직이 해병대전우회와 K대학교 동창회, 그리고 호남향우회라고 많이들 말한다. 이처럼 호남향우회가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된 것은 출신 고향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떠나와 살게 되면서 고향에 대한 짙은 향수와 함께 현실적으로 고향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아서 일 것이다.

아울러 여러 향우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사자성이 가 '여우가 죽을 때 고향 쪽을 향해 머리를 뚫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다. 최근 우리지역 순천시 출신 대기업 회장은 고향에 있는 주민과 초·중·고교의 고향 동창생들에게 세금까지도 대납하고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까지의 거액을 증여했다고 화제가 됐다. 이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연료 보도에 의하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지방

소멸 위험 우려가 높은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이 무려 18곳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자체에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 예산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하여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고향 울레(GO鄕 ALL來) 사업 공모에 고희, 영암, 곡성군 등 전남 지역 5곳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니 이 사업이 인구 감소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점이 되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생활 활동 인구 증가와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젊은 청년 농업인에게 매월 정착금을 지급하고, 월 1만 원 임대주택 사업 등 특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단반성이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우리 고향에는 아직도 어릴 때 추억과 짙은 향수가 남아 있으며 보고 싶은 친구들, 부모님의 사랑,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을 계기로 그림그려진 고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반추(反摠)해 보길 바라며 소중한 고향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社說

서남권 거점 항구도시 기로에 선 목포 신항

전남도가 목포 신항만을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목포 신항만을 자유무역지대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서남권 거점 항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 단초는 세계 1위 해상풍력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투자다. 베스타스는 목포 신항만 20만㎡ 부지에 4000억 원을 투자해 15MW 나셀(풍력발전 장치) 조립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업계 최대 기업이라 공장이 들어선다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베스타스 이사회 승인을 통해 구속력있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내년 1분기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베스타스의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목포 신항만이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기 컨테이너 선박 항로 보유와 3만톤 급 이상 컨테

이너선 전용 부두 확보 등 몇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면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물론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현재 목포 신항만은 화물처리 능력과 배후부지 면적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끌어 내야 한다.

전남도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때문에 목포 신항만을 서남권 거점 항구로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목포 신항만이 서남권 거점 항구이자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항으로 도약하는 기로에 서 있다. 전남도는 정부로부터 자유무역지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이끌어 내 베스타스의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수소차 애물단지 안 되게 인프라 확충해야

광주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차가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로 부상하고 있지만 차속은 수소 가격과 미흡한 인프라로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광주지역 6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그린카진흥원(진흥원)은 오늘부터 kg당 9100원이던 수소 단가를 9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국 평균인 9696원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지난 1월 kg당 8200원이던 수소 단가가 네 차례에 걸쳐 1200원이나 올라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일한 수소차인 현대차 넥소를 완전히 충전할 경우 5만 9000여 원(연료탱크 용량 6.33kg)이 든다. kg당 96.2km를 주행하는 연비를 고려하면 100km를 1만원에 가는 셈이다. 반면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급속 충전 기준(kWh당 324.4원)으로 100km를 주행하는데 6400원이 들어 수소차보다 저렴하다.

'하늘의 별따기'로 불리는 충전소의 구난도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수소 충전소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자격증 소지자들이 충전소 취업을 기피하는 탓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말 계약이 만료된 진공충전소 직원의 후임을 뽑지 못해 1시간 늦게 운전하고 2시간 일직 문을 닫아 수소차들이 밤 10시 이후에는 충전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전소를 늘려야 하지만 1기당 30억원이 소요돼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수소산업 허브 도시를 목표로 내년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장비 및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관련 산업을 추진한다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오스트리아 출신의 과학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1902~1994)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철학적으로 옹호한다. 그가 말하는 열린사회는 비판과 토론을 거친 합의의 문제를 풀어가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 사회다. 여기에는 닫힌 형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그 답론이 정책의 실체로 반영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열린사회의 적은 전체주의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포퍼는 "열린사회는 완벽한 유포아를 꿈꾸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할 뿐이다. 열린사회는 문제가 있을 때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으로 입증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늘 자유를 만들었다. 포퍼가 플라톤-헤겔-마르크스를 전체주의 사상의 이론 제창자로 삼는 까닭은 그들이 바로 유포아를 꿈꾸었기 때문이다.

포퍼는 과학이론에서 "하나의 최종적이고도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고 비판적 검증에 통해서만 좀 더 나은 모습이 된다"고 말한다. 틀릴 가능성이 있는 이론, 즉 '반증 가능성'이 있는 이론만이 과학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내지 시작 했다.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 이어질 초유의 환경 재앙에 우

리 어떤과 수산물 상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항의하면 '반국가 세력'이라 하고, "과학적으로 문제없다"고 강변하면서 반대 의견을 '괴담'으로 치부한다. 포퍼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은 반증 가능성이 외부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 과학의 이름으로 반론을 허용하지 않거나, 피해를 당하는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사회는 닫힌사회다.

/유재권 편집팀장1국장 jkyou@

기고



박안수
남광주농협 사외이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해 지방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정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와 경기대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함에 있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날이 제정돼 다함께 고향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저런 연유로 고향을 떠나 대도시 등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고향' (故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겹고 포근하고 설렘 듯 싶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기부자수가 1000여 명이 넘고, 기부 금액 또한 많은 1억 원을 초과한 지자체가 있다고 한다. 또 인접 지자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영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 국 220-0551 (FAX 222-0195) 다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